

제 211 호

대림 제 2 주일 (C해)

1976. 12. 5.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기다리는 마음

유 장 훈 신부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하며...” 해마다 대림시기가 되면 부르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 깊이 뭉클함을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이는 노래 자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 절실히 공감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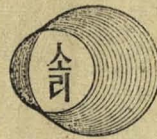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이상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어느 한 순간도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심스런 생각이라고 지나쳐 버리기에 너무나도 어둡고 어실른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가련함이 슬퍼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에 아쉬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도 내일이 오면 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한가닥의 기다림이 지난날의 우리를 지탱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같이 흠뻑하고 아쉬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의 희망과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 생각 됩니다. 그는 내일의 가능성을 바라다볼 수 있기에 쉽게 포기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보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삶의 생동하는 힘이 되어 오늘의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낳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댓가도 지불하기를 거부하면서 막연히 내일을 기다려 보는 헛된 망상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음은 더더욱 위험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온갖 어두움을 몰아낼 참된 광명이 닥아 오고 있음을 알리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희망의 소리에 우리 인생의 좌표를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성심여중고교 종교강>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어느 女工의 일기-

□1974년 5월 31일

9시에 작업이 끝나고 월급을 받았다. ...5,080원에서 사진값 빼고 4천8백원이었다. 빚을 다 갚고나면 겨우 천원이 남는다. 어떻게 한 달을 살아야 할지, 그저 막연하기만 하다. 왜 이렇게 항상 돈에 지배 받지 않으면 안 될까? 언제나 돈을 많이 벌어 마음껏 쓸 수가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은 나에게 오지 않으니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에 잘못이 있어서일까? 운이 없어서일까? 아니겠지. 나도 오래 이 회사에 다니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 뭐.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며 그때까지 나의 번덕스런 성격이 참을 수가 있을까?

□7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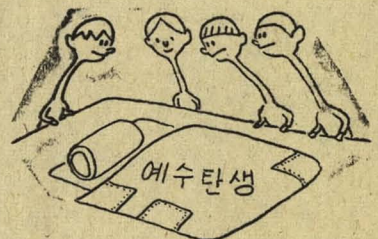
...(빵이) 제법 잘 팔린다. 그런데 경비 녀석들이 뭐 새베라도 쫓는듯 쫓는다. 나도 장사꾼이기에 도망을 가야 했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었으나 나와 같은 포래의 제집애들이 잘난체하고 멋진 옷이나 신발로 장식을 하고 사내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꼴은 확 달려들어 쥐어 뜯어 놓고 싶을 정도로 밉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오직 운명이기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 나는 이 밤이 시끄럽기만하고 소란스럽기만하고 거짓투성인 것 같다. 과연 예수는 저 거리에 찾아 올까? 빨리 날이나 밝았으면 좋겠다. (이상月刊 對話 11월호, 石正南양(20세)의 일기에서 발췌)

지금은 「하느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달픈 나그네길을 가는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대림절. 이 소녀의 꿈은 오직 그의 것만인가? 이 소녀는 누구인가?

숲 정 이 산책



목이 길어지는 대림절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3)

김 영 신 신부

11월 27일 아침 6시 고속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날린다. 머리속으로 여러 사진들—그리스도의 현존, 내리는 눈, 고속도로상의 다발 사고, 구속된 성직자, 예언자들, 그리스도의 길—이 뇌리를 스치며 마음을 다져준다.

고달픈 몸을 반겨주지 않는 재판정 입구다. 오히려 경제, 조사가 대단하다. 국제기독교 연합회 대표 외국인 20명 특별 방청 때문일까? 아니면 일방통행을 위한 사고 예방일까?

박세경 변호인 대표는 3·1사건과 김대중씨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병합 심리를 반대하는 분리 심리 신청을 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3·1사건의 증거조사가 시작된 초반 단계이고 아직도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병합 심리는 재판상 혼선을 빚을 뿐 아니라 증인진술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3·1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분리 심리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씨 선거법 위반판례는 증인들의 신변 보호상 긴급조치 해제 이후에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반대 발언으로 합의를 위해 5분간 휴정한 뒤,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은명기 목사(前 전주 남문교회)와 탁희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유진오 박사는 취소,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이에 변호인들은 제2심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1심과 같은 재판이 되지 않도록 이의 신청을 한다.

유 현석 변호사(천주교 변호인 대표)는 천주교 신부와 의 관련부분을 위하여 김지하(방지거)시인의 증언과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을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한다. 이유는 3·1절 구국선언문 낭독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에 못지 않게 취급받고 있는 김지하 양심선언과 경과보고,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이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지하가 재판증인테도 그 자료를 인용하여 김지하는 공산주의자라는 책자를 배포 했다. 김지하의 양심선언 등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의 어머니 호소문도 김지하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니 구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부님들과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김지하가 30분이면 와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왜곡>인지는 본인이 나와서 밝혀주었으면 한다.

하경철 변호사(全州高 出身)도 신부님들 관련 부분에 대하여 김지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재신청 했다. 이유는 경과보고와 김지하 양심선언,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 내용 발표로 기소되었는데 그 원본 자체가 당 법정에 현치되어 있지 않다. (경과보고는 현재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지 않은가?) 1심법정에서 문정현, 신현봉 신부는 기소된 공소장 p.90경과 보고 내용에 「부르조아」라는 말이 없다고 했으며 p.110의 기소내용도 호소문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호소문과 경과보고 내용에서 색출되지 않고서, 또 증인의 증언이 없이 과연 어떻게

밝혀지겠는가? 따라서 김지하와 김지하 어머니를 증인으로 재신청한다.

검찰관은 이에 대하여 김지하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변소는 기록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반대한다.

김광희 변호사는 “오해가 ‘있다’ ‘없다’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뜻에서 사실이라면 청하기전에 제시를 해주고 증인을 불러주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라고 의견을 추가하자 재판장은 증인신청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문정현 신부는 변호인에게 원을 했던 이유를 말한다. — “1심에서 증거물로 제시했던 경과보고는 원본이 아닌 다른 인쇄물을 보여주었다. 원본을 금방 가져온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원본이 없는 가운데 1심재판을 끝마쳤고, 2심까지도 그렇게 「조작」된 재판을 거듭한다.”

이택돈 변호사는 장원종 교수가 지난번에 증인으로 못나오겠다고 하다가 본인의 말과는 모순되게 갑자기 나와서 아무런 준비없이 증인신문을 하게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3·1구국선언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발표한 잡지 「정경 연구」 10여권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한다. 또한 재정문제에 대한 국회의회의록을 증거물로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공통의 심정을 말한다. 3·1구국선언이 국내의 문제와 장래 문제등 광범위한 내용이므로 박학한 전문가들이 증언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계통별로 1명씩의 증인을 재신청한다.

政治体制에 대하여 구헌법, 자유민주주의, 과거의 스페인 법 등에 대한 증인으로 유진오 박사를 재신청한다. 良心의 자유에 대하여 종교계에 봉착하고 있는 김관석 목사를 재신청한다.

學園의 자유에 대하여 김정준 학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한다.

勞働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노동자속에 들어가 실태를 조사한 조화순 여사를 증인으로 재신청한다.

이택돈 변호사가 재판에 참고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다—신분을 밝히고 방청권을 발부받은 후에도 방청을 못하게 제지했고, 유진오 박사도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못나왔다. 증인 오세웅 국회의원도 증인으로 못나가게 하는 전화를 3~4번 받고 나왔다. 신부 3명은 김지하의 증인신청 수락과 자유스러운 면회를 요청하는 뜻으로 단식기도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각을 자꾸만 시켜 실망시키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어 서로가 후회없도록 원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

허규 변호사도 증인을 재신청하는 심정은 암담하다며 1심에서 한번 무대절을 받았는데 또다시 2심에서 그런 것을 당할 수 없어서 신청했는데 또 기각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재신청을 한다.

(전주교구 판리국장)

□양 자 쪽□

장한 평신도 사도들

-전동 천주교회 편



우리 주위에는 장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그 몇분을 소개한다.
전동 천주교회는 1915년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주보로 모시고 축성되었다.
전주지방의 순교 성지 남문밖에 자리한 전동 천주교회가 주보축일을 맞이하여 장한 평신도 몇분을 표창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의 거울로 삼았다.

□장한 어머니, 배 말레(마리아, 52세)

6남 4녀를 이 사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길러 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느님 대전에 바쳐 그리스도의 구원성업을 도와드리고 있다. 범 선배(라우렌시오, 대야 천주교회 주임) 신부와 범 영배(라파엘, 금년 12월 16일 부제 서품예정) 시종직이 그들이다.

또한 전교활동의 일선에서 레지오 마리에 단원으로 17년간이나 활동했다.

□장한 여인, 김 숙희(세시리아, 43세)

6자녀를 기르며 상업하는 남편을 도와 이제는 오두막집에서 아담한 문화주택을 장만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기름을 팔아 교회에 자신의 정성을 봉헌하고 있으며 구이 공소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1만5천원을 회사하기도 했다.

신자가 아닌 남편과 20년을 지내오며 노력하고 기도한 보람이 있어 금년 성탄절에는 남편도 영세할 예정이다. 1970년도에 레지오 활동 10년 개근상을 받았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애를 낳은 3일만에도 회합에 나갔고, 활동에 나간 날은 밤중에 빨래를 하기도 했으며, 9명의 시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주며 입교시켰다.

□장한 선교, 정 현자(헤레나, 72세)

1958년에 영세한 이래 18년간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그의 일로 삼았다. 그간 48명을 하느님의 딸이 되게 했다. 그는 활동대상자를 입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그들의 대모가 되어 주어 그들을 계속 돌보아 주고 있다.

□장한 사도직, 권 혈자(마리아, 53세)

구역의 반회장으로 어려운 여건중에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어 다른 이들의 거울이 되고 있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은 물론, 남모르는 가운데 말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도회 월례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장한 봉사(奉仕), 양 임모(젠마, 38세), 홍 순녀(테레사, 23세)

170여명의 넓은 성전을 일주일에 두번씩 청소해왔다. 작년 가을부터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사실이 1년이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전까지만해도 월 7천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해오던 일꺼리였다. "상 주면 앞으로는 청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의 겸손에 감화되어 이제는 양 경배(베네딕도)군과 장복례(에디타)양도 같이 거들고 있다.

양 젠마씨는 일생을 동정으로 지내며 하느님 나라를 떠나가고 있으며, 홍테레사양은 J.O.C. 투사로 주일날에는 성당 입구에 성서와 성물을 전시 판매하여 말씀 전파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②8548)

건강 상담, 특수 처방

동 양 약 국

군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갑 공장 앞〉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요심이 (175)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5013
김원준(야교버)

□희소식!!!

나왔다 가스 완

(연탄가스 제독제)

- ★ 16년간 연구하여 국립 연구기관 유해가스 제독의 우수한 성적서를 획득하였음.
- ★ 1개월 경비 500원

□책임지고 따뜻하게

- ★ 한국(流) 온수 보일러
- ★ 금화식 보일러

가스완 전주 특약점
한국(流) 온수 보일러 전동 지점
주원매(실베들)

□전주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214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혼인 문제 상담일 <12월 7일(화), 교구청 응접실>
복잡한 혼인 문제로 고통받지 마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니 꼭 오십시오.
 2. 조국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월요 기도회 <12월 7일(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 뜻 있는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제 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 <12월 8일(수) 오후 7시, 노송동 천주교회>
 4. L.M 연중 친부회 <12월 8일(수) 밤 7시, 전동성당>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축! 최석식(前 중앙 성당 학생회장, 해성고 졸업, 전북 법대 4년)군,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종원
사도 회장 이상홍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방지거 삼회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반
3. 꾸리아 월례회 : 다음주 오후 2시
4. 고백성사 일정 : 12월 6일~19일 <진북 1동, 서노 1구 서노 2구, 중노송동, 인후동, 직장인, 학생...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12일~17일 <교사동, 경원동 태평동 1, 2가>
5. 가정 방문 일정 : 6일~10일 <진북 2동, 서진동>
6. 위문품 준비 : 각 세대별로 준비 바람 (구역장님께서 방문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7. ★축 서품식...강덕창(아우구스티노), 김태윤(안드레아), 부제품...강덕수(도마)
◎ 물심 양면으로 협조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박종홍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주일학교 교리 및 미사시간 변경 <12월 11일부터> 주일학교-매주 토요일 오후 2시반 <미사-오후 3시반> 중·고등학생-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미사-오후 6시반>
3. 성모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 <12월 8일> 미사시간 <오후 7시> ◎이날 다같이 참여합시다.
4. 공소 판공 성사 일정 : 황운리-10일(금) 오후 2시부터, 신원리-13일(월) 오전 10시부터, 왕정리-14일(화) 오전 10시부터, 다리리-15(수) 오전 10시부터, 유아동-17일(금) 오후 2시부터
5. 어린이 영세식 : 12월 11일(토) 오후 2시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축!! 성당 신입금 500만원 돌파...

1. 금주 성당 신축 헌금 : 윤용중, 이수영, 이광무, 이수진, 김완옥(각 1만원), 김인규(5천원), 익명(5만원) 이기호(3만원) 누계 135,000원, 총계 5,122,500원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임원회 : 12월 6일(월) 12시
4. 청년회 성탄 준비 성가연습 <중·고생 포함> : 매주 토요일 저녁 미사후
5. 본당 판공성사 일정 : 12월 7일~9일 <미산리>, 13일 <팔복동, 송천동>, 14일 <금암동>, 15일 <덕진동>, 17일 <병자성사>, 18일, 19일 <직장및학생>, 29일~22일 <전당리>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로

1. 판공 성사 일정 : 12월 18일(토) 오후 2시~6시 <다가동, 중앙동, 교사동>, 19일(일) 오후 2시~5시 <직장인, 학생>, 29일(월) 오후 2시~5시 <태평동, 진북동, 기타>, 21일(화) 오후 2시~5시 <화산동, 효자동, 완산동>
① 날짜와 시간 엄수, ② 주민등록증 지참 <교적 정리 관계> ③ 교무금 납부 바람 ④ 반회장님은 판공성사에 모두가 임하도록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일, 23일, 24일은 영세식, 성탄준비 관계로 성사 볼 수 없음
2. 영세식 : 24일(토) 오후 5시
3. 성탄 합동 가정미사 :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봉헌하시기 바람
4. 국군장병들에게 성탄 위문품 위문금, 위문편지를 다같이 보냅니다.
<접수-12월 14일까지 사무실에서>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확대회의 : 10시 미사후 ◎ 반장님까지 전원 참석 바람
2. 예비자 특별교리 : 7일(화) 7시 30분부터 <매일있음>
3.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편지 및 위문품을 정성껏 협조 합시다.
4. 반상회 : 12월 반상회는 한달 한시에 개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지-12월 11일(토) 밤 8시, 장소-각 반, 주최-반장님, 사도임원>
5. ★축! 성모회(할머니회)-41명, 어머니회-31명, 청년회-28명
성모회 : 회장-손숙옥, 부회장-박순덕, 총무-김순애, 어머니회 : 회장-장은수, 부회장-김순자, 총무-윤성순, 서기-윤안나
청년회 : 회장-김영한, 부회장-김영신, 총무-김문수, 서기-김문숙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유석중

1. ★축! 본당 주보(프란치스코) 축일 행사
2. 사도회, 성화회, 유아세례
3. 이판 판공성사 : 12월 7일(화)
4. 영세 집중 교리 : 6일~11일 밤 미사후
5. 판공성사 : 13일(월)~18일(토)까지
6. 청소년 목상회 : 다음주일 오전 9시~오후 9시, 가톨릭 센터.